

그림으로 살펴보는 추리문학 계보

장르별 특징과 대표작가, 대표작품



오스틴 프리만

《오시리스의 눈》(1911)
탐정으로 쓴다이크 박사가 등장해 과학,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범인을 뒤쫓는다. 각종 도구와 화학 실험 등 명백히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증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논리적 추리과정은 거의 배제된다.

프리만 윌즈 크로포츠

《통》(1920)
알리바이를 중요시한 일련의 작품을 발표했다. 기차, 선박 등 특수한 사회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수사기법을 보여줬다.

도로시 세이어즈

《아름명의 양복쟁이》(1934)
골든에이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과학, 의학적 지식에 치중한다는 점, 수수께끼풀듯하다는 주인공의 모험과 서스펜스에 더 치중한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에 포함된다.

사실주의 추리소설

시기상 비슷하지만, 골든에이지와 반대 방향으로 발전한 추리소설. 알리바이·지문·혈흔 등 실제 사건추리에서 비중있게 사용되는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추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독자가 참여할 기회가 없다. 당연히 경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대셜 해미트

《말타의 매》(1930)
사립탐정 샘 스페이드가 나온다. 현장조사·증인조사·알리바이 등 사실주의 추리소설의 영향관계가 짙게 배어 있다. 하드보일드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 파도 파탈도 등장.



레이몬드 찬들러

《안녕, 내 사랑》(1940)
폭력과 기만으로 가득 찬 현대도시를 냉소하는 우수에 찬 사립탐정 필립 말로우를 등장시켰다. 빈번하게 폭력과 섹스가 사용되는 반면, 수수께끼풀듯은 약화돼 진정한 추리소설로 보지 않는 사람도 많은 편.

하드보일드

범인을 밝히는 과정은 다른 추리소설과 비슷하지만, 주인공은 지적인 추리가 아니라 행동과 완력으로 범인을 밝힌다. 때로 범인이 스스로 실토하는 경우도 있어 모험소설과 추리소설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개성이 강한 등장인물, 복잡한 플롯, 장식적인 배경 등으로 골든에이지와 함께 대표적인 추리소설의 장르로 남았다.



블랙 마스크

1920년대 스파이소설, 모험소설을 위주로 창간됐으나 점차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을 소개함으로써 1930년대 가장 대표적인 필프잡지로 떠올랐다. 하드보일드 작가들을 블랙 마스크파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얼 스탠리 가드너

《벨벳발톱 사건》(1933)
변호사 페리 메이슨을 등장시킨 법정드라마.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은 하드보일드, 범죄가 일어난 뒤에는 전형적인 추리소설로 구성됐다. 보다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다룬다.

〈정리 : 김연수 기자〉

